

마그레브 안달루시아 문화도시 ‘틀렘센(Tlemcen)’ 지역의 이슬람적 정체성에 관한 고찰

임기대*

1. 들어가는 말

우리에게 ‘안달루시아’(Andalucia)는 이베리아 반도의 남부지역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곤 하지만, 북아프리카, 즉 마그레브(Maghreb)¹⁾ 지역에도 안달루시아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는 마그레브 베르베르인들이 진출하여 일군 거대 이슬람문화권으로 ‘레콩키스타’(Reconquista)²⁾ 이후에는 마그레브지역으로 내려와 안달루시아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1492년 그라나다가 함락하면서 스페인 안달루시아는 카스티야 왕국에 합병되었고, 수많은 무어인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떠났다. 떠난 이들을 받아들인 곳은 마그레브지역이었다. 이와 같이 마그레브지역과 안달루시아 관계는 역사 속에서 상호·교환적인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지역 안달루시아 문화를 개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그레브 안달루시아 문화가 주로 모로코에 있다고 생각한다. 안달루시아 문화가 알제리에서도 번성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알제리에서 안달루시아 문화의 영향력이 살아 있는 ‘틀렘센’(Tlemcen) 지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틀렘센 지역에서 태동한 이슬람 왕조를 살펴봄, 스페인 안달루시아와의 관계, 무엇보다 이들 대부분이 베르베르인이었음에 착안하여 초기 건립된 마그레브 지역에서 초기 이슬람왕조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틀렘센 왕국이 역사 속에서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기 이 지역에서 이슬람을 수용하고 지속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특이점’이 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틀렘센 지역민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일 때 오늘날 흔히 일컫는 수니파나 시아파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 즉 베르베르인의 정서와 관습과 공유

*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전자우편 : dlarleo@hanmail.net

1) 본고에서 ‘마그레브’를 지칭하는 지역은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를 일컫는다. 이들 지역은 이슬람문화권이며 동시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아 리비아와 이집트와는 문화적 특성을 달리하는 곳이다.

2) 이슬람에 정복된 이베리아 반도에서 무슬림을 몰아내기 위한 가톨릭 세력의 국토회복 운동을 일컫는다. 아랍제국을 다스린 첫 번째 이슬람 세습왕조인 우마이야(661-750) 왕조의 이베리아 정복으로 잃어버린 가톨릭 국가의 영토는 1492년 그라나다 정복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되는 카와리지파를 신봉하였다. 카와리지파는 오늘날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금기시 하는 종파였지만 초기 마그레브지역에서는 저항과 수용의 의미에서 카와리지파가 폭넓게 확산되었다.

왕조의 도시였던 틀렘센 지역은 이후 중세시대 들어서는 지중해 도시와 교역을 확장하였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와 해양 도시 간 교역은 틀렘센의 규모를 확장해 가며, 여러 문물을 수용하게 했다.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교역의 향배도 달라졌지만 도시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게 하는 순기능을 갖춘 것은 확실해 보인다. 유럽으로 통하거나 사하라 이남을 넘어 수단으로 향하는 대상들의 주 관문 역할을 한 틀렘센은 여러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 될 정도로 성장했으며, 문화적으로도 번성하였다.

본고를 통해 우리는 안달루시아 문화권의 확장된 개념으로 알제리의 틀렘센을 보고자 한다. 이 지역에서 최초의 이슬람 왕조가 어떻게 태동했고 존속했는지를 보고자 하며, 이후 마그레브와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이 확장되며 이 초기의 왕조가 어떤 역할을 했을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틀렘센’은 알제리 현대사에서도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는 곳이다. 틀렘센 지역민들은 자신들의 영화로웠던 시기를 연상하며, 부테플리카 정권(1999-2019) 들어 권력의 핵심에 올라서기도 했다. 기존의 권력과 새로운 파워엘리트 간의 세력 다툼에서 중요한 한축을 차지했던 것이다. 이런 여러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안달루시아 중심 도시 틀렘센의 ‘역사성’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알제리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2. 다양한 문명의 교차로, 틀렘센

‘틀렘센’(Tlemcen)³⁾은 마그레브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다층적 문명 구조를 갖춘 몇 안 되는 지역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신석기시대 이전부터 인류가 살았던 북아프리카의 여러 지역 중 하나였다. ‘틀렘센’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우물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Talmest의 여성 복수형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또 다른 의견은 베르베르어 여성형인 Thala Imsan으로 ‘건조한 봄’ 혹은 ‘사자의 샘’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면서 ‘틀렘센’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고 한다.⁴⁾ 틀렘센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다. 프랑스의 식민지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콜롱(colon, 식민지 개척

3) 틀렘센은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서쪽으로 약 520km지점에 위치해 있다. 모코코와의 국경까지는 60km, 지중해로부터는 40km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도시는 베르베르, 아랍, 안달루시아, 오스만터키, 프랑스 문화가 모두 혼재해 있는 몇 안 되는 마그레브 지역이다.

4) 실제로 틀렘센의 지역적 위치를 보면 해양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이 지역을 통해 틀렘센 아래의 스텝지역을 지나 사막지대까지의 수원공급지 역할을 하기도 한다(<https://en.wikipedia.org/wiki/Tlemcen>). 지중해와 사하라 대상들을 연결해준 주요 교차로가 충분히 될 수 있던 이유이기도 하다.

자)의 지위를 갖고 활동하기도 했다. 지역 토착민들은 베르베르인이었으며, 이들은 모레타니아(Mauretania)를 건설하여 나름의 문명권을 형성하였다. 베르베르인들은 로마에 저항하기도 했지만 마그레브의 여타 지역처럼 로마의 속국을 면할 수는 없었다. 아이라 M.라피두스(2009: 506)는 아랍 이전 베르베르인들이 서로 문화적인 공통점은 갖고 있었지만 국가를 형성한 적은 없다고 지적하였지만, 적어도 틀렘센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도 식민지배 이전에 이 지역에 국가 단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가설을 흘리지만 이 또한 자신들이 이 지역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당위성을 말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⁵⁾

모레타니아는 기원전 3세기~40년 사이 번성한 왕국으로 토착민인 베르베르인이 세운 왕국이었다, 이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⁶⁾ 우리가 흔히 부르는 무어인(Moore)은 이들을 일컫는 말이며, 무어인들은 이후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이베리아 반도를 이슬람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⁷⁾ 모레타니아 왕국이 베르베르인과 로마인으로 구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이 도래한 후 마그레브 지역은 빠르게 아랍·이슬람화하면서 거대 문명을 일구게 된다. 이들 문명권은 아랍인 정복자나 베르베르인과 로마 등의 지중해 연안 도시가 서로 융화됨으로써 생겨났다. 기층문화에 외래문화가 흡수되어 축적, 동화되는 다층적 문명 구조를 갖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인데(윤용수 2017:31), 틀렘센은 일찍이 이 모든 요소를 갖춘 알제리의 대표 지역이 되었다.

마그레브 지역이 매우 빠르게 이슬람화되면서 틀렘센 지역은 이슬람 왕조를 건설해갔다. 토착민인 베르베르인은 아랍의 침략에 맞서 세 가지 형태로 존속하고 있었다. 첫째는 아랍인의 정복 와중에서도 일정 기간 기독교와 유대교로 남아 있던 부류이다.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주로 도심이나 산악지대에 살던 토착 정착민이다. 이들은 아랍·이슬람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둘째, 아랍 군대에 복무하면서 알제리, 모로코, 스페인의 이슬람화에 앞장 선 부류이다. 그 유명한 지브롤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브롤터’는 베르베르인 타리크 이븐 지야드(Tariq ibn Ziyad)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타리크 이븐 지야드는 베르베르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이베리아 정복의 선두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오늘날 세우타(Ceuta) 지역 백작의 자녀를 틀렘센 지역에 인질로 두고 이베리아 정복에 나설 정도로 전략가이면서 틀렘센을 중요하게 생각한 인물이다. 틀렘센을 이베리아 반도 정복의 배후 기지로 삼으려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듯 타리크와 같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베

5) 실제로 프랑스는 2005년 마그레브에서 <프랑스의 긍정적 역할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켜 알제리를 비롯한 마그레브인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 법안은 부테플리카 정권에서 밀월 관계를 유지한 프랑스와 알제리의 우호조약 체결이 중단되었고,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 전까지 국민들의 감정을 수그러들게 하지 못했다.

6) 비슷한 시기 알제리 동부와 튀니지 경계에서는 누미디아(Numidia, BC.202~BC.46) 베르베르 왕조가 있었다. 이 왕국 또한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7) <https://fr.wikipedia.org/wiki/Maur%C3%A9tanie>

르베르인들은 이베리아 반도 정복에 앞장서기도 했다. 마지막 부류의 베르베르인으로서는 이슬람의 카와리지파를 새로운 종교로 내세우며, 아랍인의 일방적 지배에 반대를 한 부류였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아랍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폐쇄적인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⁸⁾ 이슬람과 틀렘센을 언급할 때 바로 카와리지파(Khawajirite)와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카와리지파와 더불어 초기 마그레브지역에서의 패권 다툼과 이슬람 수용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더불어 카와리지파 세력이 어떻게 패권을 상실하며 오늘날 마그레브 국가들이 수니파 이슬람 국가로 변해갔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틀렘센은 알제리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지만 독립 이후 아랍·이슬람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지역을 떠나거나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레콩키스타’ 이후로 여러 유대인 가문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는 가문의 존재를 드러내질 못하고 있다⁹⁾. 유대인들은 안달루시아의 여러 무어인들처럼 기독교를 피해 틀렘센에 정착하였다. 당시 약 50,000명의 코르도바에서 온 무어인들은 틀렘센 지역으로 내려오면서도 안달루시아의 집 열쇠를 그대로 갖고 왔으며,¹⁰⁾ 자신들이 누렸던 여러 문화·예술을 틀렘센에 뿌리내렸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틀렘센 내의 궁전 모습과 모스크, 메데르사 등은 그라나다와 코르도바 등의 안달루시아 건축물을 재현해놓은 것과도 같다. 엘메슈아라(El Méchouar) 궁과 같은 유적지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¹¹⁾, 주변에 메르사와 모스크가 같이 어우러져 있다.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왔지만 그 모습을 틀렘센에 재현해놓으며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것이다.

8) 대표적인 곳이 알제리의 음자브(M'zab)지역의 모자비트족이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집단적으로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랍인과의 충돌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음자브지역에 대해서는 임기대(2014) 참조.

9) 틀렘센에는 대규모 유대인 공동묘지가 있다. 대규모의 공동묘지는 이 지역에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대를 이어 살아왔음을 의미한다. 틀렘센에서 유대인의 존재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https://fr.wikipedia.org/wiki/Histoire_des_Juifs_%C3%A0_Tlemcen 틀렘센에서 유대인의 가문과 과거 유명 인사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judaicalgeria.com/pages/communautes-juives-d-algerie/communaute-de-tlemcen.html>

10) 이들은 다시 이베리아 반도의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이후 영원히 갈 수 없는 곳이 되며 틀렘센 지역에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담아 문화·예술의 정취를 남기게 된다.

11) 엘메슈아라 궁은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을 완벽하게 재현해놓았다. 자이안 왕조의 궁으로 사용됐지만, 이 궁전은 많은 안달루시아인들의 향수를 자극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 알제리에서는 보기 드물게 마린왕조의 만수라(Mansourah) 모스크도 있어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킨다.

사진 1. 틀렘센의 이슬람 문화 유적¹²⁾



엘메슈아라 궁



만수라의 미나렛

이렇듯 이슬람 안달루시아 문화를 개화했지만 이슬람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지역민들은 아랍인의 지배에 반기를 들었다. 이슬람을 받아들였지만 아랍의 지배에는 단호하게 반기를 들고 독자 왕조를 건립한 것이다. 이 지역이 동부의 베르베르지역과 이슬람을 수용하는 데 있어 다른 부분이다.¹³⁾ 심지어 9세기 파티마 왕조(909~1171)가 마그레브 지역을 휩쓸었을 때조차 틀렘센 지역은 그 영향권에 있지 않을 정도로 초기 이슬람 왕조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베르베르 왕조였던 알모라비드(Almoravid, 1040-1147)와 알모하드(Almohade, 1150-1237) 왕조의 지배 또한 영향력이 지대했다. 이 두 왕국은 지젤(Jijel)¹⁴⁾이나 튀니스, 트리폴리와 같은 항구 도시에서 이탈리아쪽에서 내려온 노르망디의 침략을 저지시키며, 마그레브 일대에 거대 왕조를 구축했다.

초기 아랍의 지배에 반기를 든 베르베르인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독자적인 이슬람 왕조를 건립하였다. 그것은 오늘날 흔히 말하는 수니와 시아파 왕조가 아닌 베르베르인들이 주체적으로 수용한 이슬람 왕조였다. 당시 아랍은 다양한 베르베르인들을 통합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없었다.

3. 초기 마그레브의 이슬람과 틀렘센 왕조

이번 장에서는 초기 마그레브의 이슬람과 틀렘센 왕조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마그레브의 이슬람은 수니파 이슬람을 추종하고 있다. 이

12) 본고에서 게재한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므로 저작권과는 무관함.

13) 동부 특히 오레스 지역의 패권자인 베르베르인 샤우이(Chaouia)는 이슬람이 도래했을 때, 아랍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이후 마그레브 전체의 이슬람화에 크게 기여했다(Pierre Bourdieu 1961).

14) 알제리 수도 알제와 튀니지의 국경 사이에 있는 해안 도시이다. 프랑스가 알제리를 식민지화 하던 17세기부터 진출하려고 했던 곳이며, 베르베르어권이지만 반 프랑스 정서가 강한 곳이다. 마그레브알 카에다지부(AQIM) 창건자인 압델말렉 드룩델(Abdelmalek Droukdel, 1970~)이 은신하고 있는 곳으로 의심받는 곳이다.

는 현재 시점에서 공식화된 것이지만 적어도 초기 이슬람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번 장에서는 마그레브의 초기 이슬람을 살펴보고, 이슬람의 수용과 정착 과정, 그리고 틀렘센 지역이 갖고 있는 ‘특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달루시아 문화 중심 지역 틀렘센의 모습과 현재 마그레브 지역민들의 이슬람, 지중해 문명의 다양한 색채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고자 한다. 더불어 부테플리카 대통령 집권 20년 동안 알제리 정치권력 중심부로서의 틀렘센에 대한 다양한 모습¹⁵⁾ 또한 조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3.1. 마그레브의 초기 이슬람과 틀렘센

마그레브 국가의 이슬람은 일반적으로 수니파 이슬람국가로 알려져 있다. 시아파와 더불어 이슬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수니파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있다. 특히 틀렘센을 비롯하여 음자브(M'zab)지역, 그리고 튀니지의 제르바(Djerba)섬, 리비아 북서부 지역의 제벨 나푸사(어두디 Nafûsa)에는 여전히 카와리리지파 계열의 이바디즘(Ibadisme)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¹⁶⁾ 이들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다(Virginie Prevost 2010). 우리는 단지 틀렘센 지역을 통해서 마그레브 지역민이 초기 이슬람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역사가나 정부도 마그레브에서의 이슬람 역사를 언급할 때 카와리리지파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Chikh Bekri 2005:35). 그것은 오늘날 자칫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수도 있는 금기시 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카와리리지파가 마그레브 지역에 수용되고 정착하게 된 데에는 우마이야(Umayyad, 661-750) 왕조의 전체적 통치방식과 아랍 우월주의에 따른 것임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으며(손주영 1997:172)¹⁷⁾, 적어도 마그레브 지역에서 베르베르인이 우마이야 왕조의 지배에 맞서 끝까지 싸운 사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마그레브의 토착민인 베르베르인은 언제 카와리리지파를 알게 되었을까? 카와리리지파가 이슬람의 한 분파이고, 이를 신봉하는 아랍인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것이 확실한데, 그렇다면 아랍이 처음 마그레브를 정복할 때 카와리리지파 추종자들이 같이 온 것인지 유추해볼 수도 있지만¹⁸⁾, 그 어떤 것도 명확하지는 않다. 중

15)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1999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BTS(Batna, Tebessa, Skikda)로 대표되는 동부 지역의 권력을 서부로 대변되는 틀렘센 지역으로 가져왔다. 독립 이후 소외된 틀렘센 지역의 권력 실체들은 대통령을 배후에 업고 엄청난 권력과 돈을 축적하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통치력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측근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고 이는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면서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2019년 4월 2일 퇴임하게 되었다(임기대 2019).

16) 연구자가 이 지역민들과 모자비트 부족장과의 현지(2019.07.18.~2019.07.31.)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음자브 지역의 이바디스트 모자비트족은 자신들이 카와리리지파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며, 자신들을 수니파의 계열로 분류하고 있었다.

17) 손주영(같은책, 164)은 이런 현상을 무아이야 왕조의 몰락 원인으로 ‘앗 타아쭈브 알 까발리’(al ta'asub al-qabali, 부족 배타주의)를 꼽고 있다.

18) 쉬크 베크리Chikh Bekri(2005:39)는 우마이야 왕조의 병사들과 카와리리지파 신봉자들이 마그레브 지

요한 것은 당시의 베르베르인이 신흥 종교에 열광하며 적극 수용했다는 것이다. 꾸란과 순나 교육에 매료되긴 했지만 이후 아랍인의 우월적 행동이나 과도한 세금 징수가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한 베르베르인에게는 배신감으로 작용했다.¹⁹⁾ 그 결과 베르베르인은 마그레브에서 우마이야 왕조의 대리인들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마그레브에서 초기 베르베르인의 아랍에 맞선 유형은 이렇게 아랍의 지배에 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²⁰⁾ 이렇게 해서 탄생한 왕조가 바로 수프리즘(Soufrisme, 742-790)왕조이다. 마그레브의 최초 이슬람 왕조를 흔히 오늘날 알제리 땅에 있던 로스탐(Rustamides 혹은 Banû Rustam, 767-909)²¹⁾ 왕조를 꼽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에 바누 이푸렌(Banu Ifren)이 이끈 수프리즘 왕조로 수도는 오늘날의 틀렘센에 두었다.

수프리즘 왕조는 이푸렌(Ifren)의 부족장 출신인 아부 꾸라(Abou Qurra)가 742년 틀렘센에서 창건한 왕조이다. 아부 꾸라로 인해 틀렘센이라는 도시가 역사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푸렌족은 마그레브 중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아랍·이슬람 왕조 우마이야와 아바스(Abbasid, 750-1258)²²⁾에 정면으로 맞섰다.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한 후 767년 들어서면서 로스탐 왕조, 제벨 네푸사²³⁾의 카와리지파와 연합한 아부 꾸라는 오늘날의 알제리 동부 바트나(Batna) 지역에서 신생 왕조인 아바스왕조의 총독을 포위하였고, 더 나아가 이베리아의 말라가와 카이루안을 정복하기도 했다. 당시 베르베르 부족장이며 오늘날 마그레브 인정하는 최초의 여전사로 꼽히는 카이나(Al Kahina)²⁴⁾도 합류하였다. 바트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카이나는 아랍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고 베르베르인의 정체성과 힘을 보여주려 한 여성이다. 결국 아랍인이 세운 카이루안을 정복하는 데 큰 힘을 보태며 오늘날까지 전설

역에 같은 낙타를 타고 대열을 지어 왔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일 뿐이다.

- 19) 하병주(2019)는 카와리지파의 핵심 사상으로 꾸란의 절대성, 통치권자의 자격으로 누구나 칼리파가 될 수 있다는 자격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의 사상은 적어도 이슬람 극단 세력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극단 성향으로 인해 조기 소멸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 20) 이외에도 정착과 유목 생활을 하는 베르베르인들이 있었다. 정착생활을 하는 베르베르인들은 아랍인의 정복 이후 기독교도로 남아 있기도 했다. 오늘날의 카빌리(Kabylia) 지역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유목생활을 하는 베르베르인들은 아랍 군부대에 복무하면서 알제리와 모로코, 스페인을 이슬람화하는 데 기여했다(아이라 M.라피두스 2009: 506). 대표적인 부족으로 오레스 지역의 샤우이족을 꼽을 수 있다.
- 21) 일반적으로 알려진 알제리 최초의 왕조이다. 페르시아 출신의 이맘 이븐 루스탐(Ibn Rustam)이 마그레브 지역에 정착하여 카와리지 왕국을 세웠다. 오늘날의 티아렛(Tiaret)에 수도를 두었다. 루스탐은 철저히 금욕 생활을 하면서도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끊임없는 종교적 열정을 추구한 신정 공동체로 체벌과 투옥 같은 수단을 통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행동을 강제했다. (아이라 M.라피두스 2009: 507).
- 22) 아바스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린 후 1258년 몽골족의 침입으로 몰락할 때까지 아랍 제국을 다스렸다. 흔히 오늘날 아랍권이라고 말할 때의 지형도를 처음으로 형성한 왕조이기도 하다.
- 23) 리비아 서북부 지역의 산악지대이다. 베르베르인으로 현재는 이바디즘으로 개종한 종족이 살고 있다.
- 24) 카이나는 오늘날 리비아와 인접한 알제리 동부지역의 베르베르 샤우이족 출신이다. 바트나를 중심으로 켄셀라(Kenchela) 등의 샤우이족 거주지에서 활동한 그녀의 사망 이후 이슬람으로 개종한 샤우이족은 급격히 아랍화되어 갔다.

적인 인물로 남아 있다.²⁵⁾

아부 꾸라는 이후 수도 틀렘센으로 돌아왔지만 서쪽에서 이드리스(Idriss, 788-974) 왕조가 동진해옴에 따라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수프리즘 왕조는 엄격한 교리에 부합하지 못하고 왕조 또한 오래 지속하지 못하였다. 아부 꾸라는 자식들이 왕조를 이어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과 교리를 지켜내려고 했다. 그에 따라 이바디즘을 신봉한 로스툼 왕조보다 수프리즘 왕조를 인정해준 이드리스 왕조의 이드리스 1세를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790년 사실상 이드리스 왕조에 통합되었다. 수프리즘 왕조는 역사에서 존재성을 드러내지 못하며 단명한 이슬람 왕조로 꼽힌다. 이 왕조의 저항 정신은 여러 분야에서 구전으로 인용되고, 지역민들은 그들을 찬양하기도 한다. 곳곳에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 그들과 관련한 유적지들과 문화적 유산은 이들의 존재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음을 알려준다.²⁶⁾ 오늘날 ‘옌나예르’(Yennayer, 베르베르의 신년) 축제가 알제리에서 공식 축일로 인정받음에 따라 이 지역의 수프리즘 전통과 축제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렇듯 마그레브지역에서는 초기 아랍인의 침입에 맞서 베르베르인의 저항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수프리즘이 있었다. 당시 압바스 왕조와 중앙집권화를 추구한 우마이야 왕조에 반기를 든 수프리즘은 칼리프를 자신들의 부족장 중에서 뽑고, 상속이나 결혼에 있어서도 기독교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상관하지 않고 허용했다.²⁷⁾ 또한 순전히 베르베르인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 결혼을 허용했고,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이 카와리지파가 추구한 사상과 비슷하다고 보았기에 쉽게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금기시 하는 다신교도 모체와도 연합을 추구함에 따라 이슬람교에서는 이단으로 간주되었다.²⁸⁾ 수프리즘은 극단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수프리즘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이바디즘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데, 그 또한 수프리즘의 극단적 성향 때문이다.

이드리스 왕조에 넘어가면서 수프리즘은 베르베르의 자나타족인 메크나사(Meknassa)를 통해 마그레브 지역으로 확산해갔다. 메크나사는 알제리 동부의 오레스(Aurès) 지역에 살고 있던 샤우이족의 중세 시대 이름으로, 초기 이슬람 정복기 타리크 이븐 지야드가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할 때 동참하여 선두에 섰던 부족이다.²⁹⁾ 메크나사는 오늘날 ‘모로코의 베르사유’로 불리는 메크네스(Meknes)와 사하

25) 이븐 할둔(Ibn Khaldoun)은 이프렌족이 동부지역의 바트나까지 간 데에는 자신들의 조상이 이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http://www.wikiwand.com/fr/Banou_lfren

26) 실제로 이프렌족의 존재는 이후 자이안 왕조가 들어설 때까지 마그레브와 말라가를 중심으로 한 이베리아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부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오늘날 모로코 라바트 인근의 살레(Salé), 이베리아 반도의 론다(Ronda)를 건설하기도 했다.

27) <https://fr.wikipedia.org/wiki/Sufrites>

28) 실제로 이프렌족은 이슬람이 도래하기 전에는 이교도를 숭상하고 있었다. 로마의 지배 기간 동안에도 이들은 기독교가 아닌 이교도를 믿는 독특한 관행을 준수했다. http://www.wikiwand.com/fr/Banou_lfren

29) 그러므로 오늘날 지브롤터로 알려진 타리크 이븐 지야드는 베르베르의 샤우이족이라 할 수 있다. <https://fr.wikipedia.org/wiki/Meknassas>

라 대상들의 거점 공간이었던 시질마사(Sijilmassa)를 건립했으며, 이베리아의 압타시드(Aftaside) 왕조(1027-2092)를 건립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동부 지역의 샤우이족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 베르베르 이슬람 왕국을 건립해갔다는 사실이다. 샤우이족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베르베르인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베르베르이지만 이슬람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저항도 거세게 했지만 이슬람을 받아들이고는 오히려 아랍과 대결하며 새로운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했다. 그 결과 수니도 시아도 아닌 카와리지파의 이슬람을 수용하게 된다. 이들은 이후 첫 번째 왕국을 알제리의 틀렘센에 건립하였고, 그 흔적은 여전히 이 지역에 일부 남아 계승되고 있다. 틀렘센을 언급할 때 베르베르 문화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³⁰⁾

이후 메크나사는 여러 전투를 해가며 힘을 잃어갔다. 하지만 또 다른 베르베르 부족은 마그레브 전체를 통일하는 거대 왕국을 건설해갔다. 카와리지파의 이데올로기를 지우며 베르베르 이슬람 왕조 구축을 실현한 알모라비드(Almoravid, 1040-1147)와 알모하드(Almohad, 1121-1269) 왕조가 그것이다. 전자는 오늘날 모로코의 마라케시와 스페인의 코르도바를 통해 그 찬란한 문화적 자산과 경제 번영의 위용을 보여주었다. 후자의 경우 과학과 예술, 건축술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유산을 남겨주었다. 이후 이 두 왕조와 같이 마그레브 전체를 통일하는 거대 왕조는 나타나지 않고 하이 아틀라스를 중심으로 한 마린(Mérinides, 1244-1465)왕조, 튀니지와 알제리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합씨드(Hafsides, 1236-1573)왕조, 틀렘센을 중심으로 안달루시아 문화를 계승한 자이안 왕조가 스페인이 마그레브에 진출하기 전 지역의 패자로써 다시금 등장했다.

3.2. 마그레브지역과 틀렘센 왕조

카와리지파를 신봉한 수프리즘이나 이바디즘 왕조의 붕괴는 마그레브에서 이슬람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초기 아랍에 적대적이었던 왕조들이 붕괴되고 이후 나타난 수니파의 알모라비드, 알모하드 왕조가 마그레브 전체를 지배했다. 이베리아 반도의 안달루시아와 마그레브가 직접적인 연결점을 갖게 된 것도 이 시기 들어서이며, 이슬람 수니파가 마그레브 전체에 걸쳐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다. 이 두 왕조는 초기 왕조들에 비해 이슬람의 이데올로기는 달랐지만 베르베르인이 중심이 되어 구축한 왕조들이었다.

30) 동부의 샤우이족이 카빌리를 넘어 틀렘센과 모로코 지역으로 확장해갔다는 것은 인류학적으로 여러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오늘날까지 이들의 흔적이 알제리 서부와 모로코 일부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슬람 초기 샤우이족은 모자비트족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지리적으로 카빌리와 가장 인접해 있지만 카빌리와는 많은 교류가 없었다.

하지만 ‘레콩키스타’가 진행되면서 이들 왕조 또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스페인이 마그레브에 진출하기 전까지 안달루시아 문화를 이어받은 왕조가 이를 튜타틀렘센 지역에 나타냈다. 이 왕조는 ‘틀렘센의 자이안 왕조’(Zayyanid dynasty of Tlemcen, 1235-1556)라고도 부르며, 베르베르 일파인 자나타족이 세운 왕조이다. 아라비아 반도의 바누 힐랄(Banu Hilal)³¹⁾이 11세기부터 마그레브 지역으로 몰려왔지만 적어도 틀렘센 지역은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나뭇의 탄탄한 왕조를 구축하였다. 틀렘센 지역민이 초기 이슬람 수용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패권주의적 정체성과 믿는 방식, 토착민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와 사회, 관습이 팽배해 있었기에 외부 아랍인이 들어오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자이안 왕조는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왕조이지만, 이미 상당한 확장성을 보인 이슬람과 지중해 문화를 품에 안고 태동한 왕조이다.³²⁾ 알모라비드를 이어 마그레브 지역의 통일 왕조 시대를 이어간 알모하드 왕조가 1236년 붕괴하면서 탄생한 자이안 왕조는 1554년 오스만터키에 지배당할 때까지 마그레브에서 안달루시아 문화의 중심지로 남게 된다. 틀렘센을 수도로 하며 오늘날의 알제리 영토 대부분을 지배하였다.³³⁾ 자이안 왕조가 생기기 전 알모하드 왕조가 힘을 잃어갔지만 1236년 오늘날의 튀니지 지역에서 합씨드(Hafside, 1228-1574)왕조가 생겨나면서 마그레브 중앙, 즉 오늘날의 알제리 주변 상황은 매우 복잡해졌다. 틀렘센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던 알제리 동부의 베자이야(Béjaïa)³⁴⁾가 합씨드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틀렘센은 합씨드 왕조와 힘겨루기를 해야 했다. 서부에서는 마린 왕조가 틀렘센을 차지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1268년에는 모울로야(Moulouya) 전투³⁵⁾에서 자이안 왕조의 군대를 격파하여 오늘날의 모로코와 알제리 국경지대를 장악하는 듯 했지만 왕조 자체를 함락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자이안 왕조가 세를 키우며 마린 왕조 수중에 있던 시질마사(Sijilmassa)³⁶⁾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이안 왕조

31) 1050년 마그레브 지역에 들어온 이후 바누 힐랄은 3세기도 되지 않아 베르베르인들을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랍화하는 데 성공한다: “En moins de trois siècles, les Hilaliens font triompher leur genre de vie et réunissent à arabiser, linguistiquement et culturellement, la plus grandes partie d’une Berbérie”(Gabriel Camps 2000. pp.8). 알모하드 왕조 하의 모로코지역 또한 바누 힐랄과 베르베르인 간의 결합으로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점차 아랍화되어 갔다(Michel Antony 2006: 16).

32) 이미 알모라비드와 알모하드 왕조 하에서 스페인의 발레아레스 제도와 시칠리아를 점령함으로써 지중해 상권의 중요한 지역이 아랍의 수중에 들어갔다.

33) 오늘날 알제리 국기가 자이안 왕조의 깃발에서 유래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34) 베자이야는 오늘날 베르베르 문화의 정체성이 가장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카빌리 지역 중심 도시 중 하나이다. 산악지대의 티지우주(Tizi-ouzou)와 더불어 카빌리 지역을 특징짓게 하는 독특한 해양문화를 갖고 있다. 과거 함마디드(Hammadides) 왕조(1011-1152)의 수도이기도 했으며, 튀니스를 수도로 한 합씨드 왕조의 지배 하에서도 베자이야 합씨드(Béjaïa's Hafside, 1249-1276)라는 독립 왕조로 잠시 존속하기도 했다. https://fr.wikipedia.org/wiki/Hafsides_de_B%C3%A9ja%C3%AFa

35) 모로코에서 가장 긴 강 중 하나이다. 약 520km정도로 미들 아틀라스에 수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수맥은 지중해 연안에서 끊긴다. <https://fr.wikipedia.org/wiki/Moulouya>

36) 시질마사는 중세 시대에 사하라 횡단 무역의 중요한 도시였다. ‘사하라의 문’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고, 모로코에서 가장 먼저 생긴 이슬람 도시 중 하나이다. 자이안 왕조가 이 도시를 차지하려고 한 것은 이 지역이 수프리즘 왕가의 마지막 피난처였었기에 늘 언젠가는 다시 이 지역을 탈환하겠다는

의 시질마사 점령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1264년 시질마사를 점령한 후 정확히 10년 만에 마린 왕조에 시질마사를 넘겨주고 만다. 이와 같이 당시 마그레브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투쟁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아랍 대 베르베르, 베르베르와 베르베르 간에 치열하게 진행됐다.

틀렘센의 압델와디드(Abd al-Wadids)³⁷⁾ 왕조 창건자는 야그모라센(Yaghmorassen, 1236-1283)이다. 당시 상황이 그랬지만 야그모라센은 마린왕조와 합씨드, 마그레브 중앙의 여러 부족들과 왕조 창건 때부터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알제리 동부 도시 베자이야는 합씨드 왕조 지배하에 들어갔지만 그에 맞먹는 틀렘센은 15세기 말까지 합씨드 왕조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정도의 종교와 학문, 군사 면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낸 도시였다.

모든 것이 수도 틀렘센에 집중된 것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취약성을 드러내게 했다. 점차 지역의 부족들은 경쟁적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왕조의 기반 자체를 흔들기도 했다. 특히 콩스탕틴과 오랑의 몇몇 지역 부족이 주도하는 왕조가 난립하며 틀렘센 왕조를 위협했다. 수도를 제외 한 다른 지역의 취약성이 수도 틀렘센까지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몰려 온 힐랄 부족이 들어오며 기존의 이슬람 지역을 혼란스럽게 한 것도 지역의 불안정을 부추긴 원인이 되었다.³⁸⁾ 그렇다고 이들이 중앙 정부를 전복시킬 정도의 위력은 없었다. 그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중해 건너편 유럽의 변화가 자이안 왕국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이렇듯 틀렘센이 정치적으로 취약해진 데에는 지역의 도전도 한몫했지만, 지중해 북부 기독교 국가들의 힘이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렘센은 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갖추어 있어 지중해 맞은 편 도시 국가들과 교역을 지속하였다.

그렇다면 틀렘센의 도시 기능은 어땠을까? 적어도 지중해 도시 국가들이 탐을 내고, 교역을 할 정도면 당시 틀렘센은 도시로서는 물론 행정 체계 등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리처드 로리스(Richard I. Lawless 1975)는 당시 틀렘센의 모습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먼저 행정과 군사적 측면의 틀렘센은 공식적으로 임명된 대사들과 영사들이 있을 정도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왕조였다. 특히 마흐잔(Makhzan)과 군 지휘관, 왕자의 개인 경호원, 기독교 용병, 도시 주둔 군병이 있었다. 압델와디드의 마흐잔 수는 마린 왕조보다 그 수가 더 많을 정도였다. 예를 들어 야그모라센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재상격인 비지르

틀렘센 지역민들의 간절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7) 자이안 왕조의 다른 이름이다. 압델와디드 부족이 왕조를 설립했다 해서 압델와디드 왕조라고도 부른다.

38) 힐랄 부족은 마그레브 지역의 아랍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토착민 간의 반목을 일으킨 주역이기도 하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베르베르인들과의 충돌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베르베르 일파인 모자비트족이 있는 음자브(M'zab)지역의 경우 아랍과 베르베르인 간의 분쟁 지역에 속하는 곳이 되고 있다(임기대 2014).

(vizir)³⁹⁾를 임명하였고, 하집(hâjib)⁴⁰⁾과 소통비서, 군비서, 재무상, 재정 재판관인 까디(Qadi)⁴¹⁾를 임명했다. 처음에는 지역 출신 인물 위주로 임명했지만, 이후 안달루시아에서 온 무슬림과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슬람 노예들도 왕가의 중요한 직책에 오르게 되었다. 이들을 서열화시키면서 수도, 주변, 마을 통치자들을 선별하여 임명하기도 했다. 토착민들이 초기 이슬람화 과정에서 중앙집권화에 반대하여 반기를 든 것과 달리, 틀렘센 왕조는 수도에 집중하는 중앙집권적 국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항구 도시를 제외하곤 취약한 면을 드러내면서 유럽 도시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3.3. 틀렘센 왕조와 안달루시아의 영향

왕조의 통치자들은 틀렘센의 종교적이며 지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삶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무엇보다 모스크와 메데레사(Medersa, 이슬람 학교)를 짓고, 교육하고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었다. 시골과는 달리 도시의 이슬람은 학교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를 충족시키려 했던 것이다. 대개가 남학생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으며, 하디스와 이슬람법 위주의 꾸란 학교가 있었다. 당시 틀렘센은 문화적인 도시로 평판이 나있어 페스나 튀니스에서도 공부하러 왔을 정도였다. 그만큼 이슬람학자들이 많이 왔고 이슬람 학문이 발달했었다. 이슬람을 강조하는 알제리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슬람을 중심으로 알제리 영토가 중심이 되었던 적은 없었다. 그만큼 지역민의 자긍심은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⁴²⁾

이와 같이 안정적인 왕조를 구축한 데에는 스페인 안달루시아와의 교류가 큰 역할을 했다. 스페인 마지막 이슬람 왕조인 나스르 왕조(Nasrid Dynasty, 1232-1492)와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안달루시아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틀렘센의 술탄은 안달루시아 궁정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기도 했다. 자이안 왕조의 4대 술탄 아부 함무 무사 1세(Abou Hammou Moussa Ier, 1266-1318)는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정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았다. 불행히도 그는 왕조를 지배하려는 아들에 의해 살해되었다.⁴³⁾ 아들 술탄 아부 타스핀(Abû Tâshfîn, 1293-1337)은 암살로 권력을 쟁취했지만 그의 재임 기간 동안(1318-1337) 여러 문화적 치적과 지중해 도시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했고, 특히 사하라 횡단 무역의 중심지로 위상을

39) 비지르(아랍어로 وزير이며 vizir, vazir, wasîr, wesir 등으로 표기됨)는 무슬림 최고 지도자들의 자문관 혹은 재상의 역할을 하는 고위급 관리를 일컫는다. <https://fr.wikipedia.org/wiki/Vizir>

40) 이슬람 제국에서 일반 민중이 지배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지키거나, 인정받은 사람만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관직명을 일컫는다 (김정위 2002: 670)

41) 까디(아랍어로 قاضي)는 시민, 법률, 종교 관련한 무슬림 재판관을 지칭한다. 일상의 문제들, 즉 결혼이나 이혼, 상속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Qadi>

42) 실제 틀렘센은 2011년 <이슬람문화의 수도>로 지정되어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도 했다. 알제리에서는 2015년에 지정된 콩스탕틴과 더불어 이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지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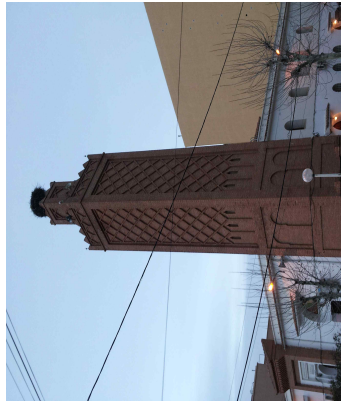
43) https://fr.wikipedia.org/wiki/Abou_Hammou_Moussa_Ier

회복하였다.⁴⁴⁾ 오늘날 엘메슈아라 궁 바로 옆에 위치한 그랜드 모스크를 건설했고, 프랑스의 식민 기간에 파괴된 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사진 2. 틀렘센의 모스크와 영묘



그랜드 모스크



마테레사(이슬람학교)



이슬람영묘

아버지를 암살했지만 자기 아들 또한 스페인으로 보내 교육시킬 정도로 안달루시아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여러 통치자가 안달루시아 문화를 배우려 했고, 시인들은 노래로 안달루시아를 찬양하기도 했다. 왕궁은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의 모습(사진 1 참조)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했고 심지어 의복과 요리 등을 모방하여 도시 속에 스며들게 하였다. 이 지역이 문화적으로 풍성해 보이지 않는 알제리에서도 가장 화려하면서도 풍요로운 이슬람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안달루시아 문화를 영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⁴⁵⁾ 틀렘센의 대표적인 항구인 호나인(Honaïne)은 스페인의 남동부 항구 도시인 무르시아(Murcia)와 가장 많은 교역을 하기도 했다. 배로 이틀 정도 걸리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틀렘센과 그라나다는 공통의 운명을 걸고 서로 자매 도시 관계를 맺었다. 많은 시인이 그라나다에서 머물렀지만, 동시에 많은 시인과 지식인들이 틀렘센에도 거주하며 안달루시아 문화의 풍요로움을 키워갔다. 이렇듯 틀렘센의 자이안 왕조는 안달루시아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시인과 지식인들의 활동으로 베르베르의 심장에서 아랍어 사용을 적극 확산시켰다.⁴⁶⁾

44) https://fr.wikipedia.org/wiki/Ab%C3%BB_T%C3%A2shf%C3%AEn

45) 실제 틀렘센의 의복과 결혼 풍습 등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알제리를 소개할 때 많이 등장하며 여러 홍보물로 활용되기도 한다.

46) 오늘날의 틀렘센은 베르베르지역의 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달루시아와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베르베르어가 소멸된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만큼 자이안 왕조 당시의 왕조는 안달루시아 문화에 매료되어 토착문화를 발전시키기보다 아랍어와 아랍문화를 활성화시켰다.

베르베르어 사용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라나다와 틀렘센의 밀착 관계가 아랍어를 ‘중심어’로 자리하게 했다. 자이안 왕조의 아랍어화는 이 지역이 향후 이슬람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이슬람문화의 중심도시로 성장해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 자이안 왕조 창건자인 야그모라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늘 베르베르어로 말했다고 한다(Stephen Harold Riggins 1992: 246). 하지만 이런 그의 노력도, 이베리아 반도에서 들어온 안달루시아 문화의 영향으로 오래가지 못했다. 사람들은 시인과 지식인을 찬양하며 아랍어로 시를 쓰고, 틀렘센은 아랍어 중심도시가 되어갔다. 이븐 할둔 또한 베르베르인으로서 이 도시에 살며, 아랍어로 글을 썼고 도시를 찬양했다.⁴⁷⁾ 이렇듯 안달루시아에서 온 이주민과 그들의 안달루시아 문화 도입은 아랍어 사용을 확산시켜갔다. 아랍족 바누 힐랄(Banu Hilal)이 아랍어화에 일조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베르베르인 스스로가 아랍어 사용을 해가며 점차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갔다. 현재는 틀렘센에서 베르베르어 사용은 소멸하였으며, 몇몇 문화적 흔적만이 자이안 왕조 시기 조상들의 혼을 담아내어 유지하고 있다.⁴⁸⁾

4. 지중해 무역 도시들과의 교역

스페인의 침략을 받은 틀렘센은 이슬람의 색채를 띠면서도 이후 무역 도시로 변성해간다. 틀렘센 이외의 지역이 공격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왕조는 쇠락해갔지만 틀렘센은 지중해 도시 간 교역에 있어 중요한 축을 형성하면서 기독교 국가들과도 경쟁과 협업을 병행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도시들과의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이를 도시 산업화와 연결하였다. 틀렘센 인근의 오랑과 그라나다와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호나인이 대표적인 항구 도시가 되었다. 도시가 활성화되고 틀렘센에 들어오려는 항구 도시들이 늘면서 패권 경쟁도 치열해졌지만 이미 활성화되기 시작한 무역 활동을 저해하지는 못했다.

스페인 아라곤 왕국과는 금 무역이라는 중요한 상품거래를 했다. 레콘키스타가 진행되면서 아라곤 왕국은 교황 이노센트 4세(1243-1358)의 후원으로 발레아르 군도를 합병했다. 13세기의 정복 군주라 알려진 차이메 1세(1208-1276)는 막강한

47) “Ibn Khaldoun qui séjourna longtemps à Tlemcen rapporta qu’«on y cultiva avec succès les sciences et les arts ; on y vit naître des savants et des hommes illustres dont la réputation s’étendit aux autres pays».”(이븐 할둔은 틀렘센에 오랫동안 머물며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사람들은 과학과 예술에 대해 성공적으로 다듬어서 명석한 학자와 인물을 키웠다. 그들의 명성은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되었다) (Hassina AMROUNI, 2012)

48) 대표적으로 베니 수느(Béni Snous)를 일컬을 수 있다. 베니 수느는 자이안 왕조 시절 왕조를 대표하는 장군을 시조로 모신 베르베르 일파이다. 현재 틀렘센에 남아 있는 유일한 베르베르인이자 자이안 왕조의 베르베르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부족이기도 하다. 건축적으로는 오레스 지역의 샤우이족이 사는 모습이며, 외모는 카빌과 샤우이와 비슷하다. 언어는 모로코의 리프지역민과 같은 계통이다. 이들은 베르베르의 신년인 ‘옌나예르’(Yennayer)를 가장 적극적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자신들이 마그레브 베르베르의 역사와 혈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Djamale Alilat 2016).

해군력을 구축하여 틀렘센 왕조를 공격하기도 했다. 공식 관계에서는 긴장과 패권 다툼을 중단하지 않았지만, 민간 교류는 꾸준히 이어졌다. 아라곤이 공격해오자 틀렘센의 태수는 바르셀로나와 교류하며 아라곤을 견제하고자 했다. 카탈루냐는 1254년 틀렘센에 무역관을 설치하기도 했다. 아라곤 왕국도 긴장 관계보다 무역 활성화를 선호했기에 3년 임기의 참사를 틀렘센에 파견했다. 1256년 차이메 1세는 참사로 하여금 기독교 병사들을 감독하고 기독교 상인의 이권 보호 업무를 맡게 했다. 아라곤의 제임스 1세는 틀렘센에 상업 재판관을 파견하기도 했다. 틀렘센 왕조에는 아라곤 무역상들이 상시 통행증을 지참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무역 거래에 있어 다른 도시보다 우위 관계에서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제임스 1세는 아들을 틀렘센 사령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안달루시아 문화가 꽃피면서도 스페인 지중해 왕조와의 교류를 이어간 자이안 왕조는 근대 국가 알제리의 탄생 이전까지 오늘날 알제리에서 가장 번창한 왕조를 이룬 곳이 되었다.

자이안 왕조는 이탈리아⁴⁹⁾ 이외에도 프랑스 남부 도시들과도 적극적인 교역을 했다. 특히 몽펠리에와 마르세유, 나르본은 남프랑스 도시 중에서도 무역 행위가 활발한 곳이었다. 12세기부터 프랑스 도시들은 마그레브 도시들과 교역하기를 원했다. 프랑스 도시들은 당시 강국인 제노바 공국의 보호를 받으며 마그레브에 진출했다. 자이안 왕조는 동부로는 베자이야까지 750km 해상로를 따라 상거래 활동을 해갔다. 유럽의 다른 지역 상인들보다 마르세유 상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면서 마르세유는 곧바로 무역 상관을 설치하였다. 마르세유와 알제리 항구 도시 간의 관계는 이렇듯 오랜 역사를 갖게 된다.⁵⁰⁾ 특히 망듀엘(Les Manduels)⁵¹⁾ 가문의 자산가나 은행가들은 마르세유와 마그레브 간의 교역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13세기 초엽의 에티엔느 망듀엘은 무역 중개상을 통해 양 도시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했다. 1232년 들어서면서 망듀엘은 제노바-오랑의 무역로를 따라 형성된 상거래의 공동 출자자가 되었다. 그는 오랑과 틀렘센, 알제, 테네스(Ténès, 알제 서쪽 200km 지점의 해안 도시)에서 상거래를 했고, 가족 또한 틀렘센 지역의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이런 식의 무역 교류는 1270년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증되는 프랑스 왕 루이 9세의 십자군 전쟁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무역 거래를 완전히 사

49) 본고에서는 틀렘센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도시 간 관계만 언급하고,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중해 문명 교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중요하지만, 본고의 내용은 안달루시아 문화권에 초점이 맞추고 있기에 향후 다뤄질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50) 흔히 마르세유는 20세기 초반부터 진행된 마그레브 이민자들의 도시로 각인되지만, 12세기부터의 교역은 마르세유가 이미 마그레브 지역과 상호 교류를 하며, 이주했던 곳임을 알게 해준다. 특히 2013년 마르세유의 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Mucem, Musée des Civilizations de l' Europe et de la Méditerranée)의 개장과 더불어 마르세유는 지중해의 문화와 역사성을 담은 도시로 성장해가고 있다.

51) 망듀엘은 마르세유에서 110km떨어진 지역이다. 망듀엘가(家)는 재력을 바탕으로 당시 해상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섬유 무역은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품 중 하나였는데 망듀엘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Nam Jong-kuk 2007)

라지게 할 수는 없었다. 15세기 초 무렵 남프랑스의 선박이 알제 항구에 선박했다는 사실이 마르세유 기록물에서 나타나며(DE MAS LATRIE 1866: 1), 교역은 15세기 들어서도 꾸준히 계속 이어졌다. 니스와 툴롱 항구도 영향을 받아 일부 선박이 마르세유 선박에 합류했다. 이렇게 합류한 마르세유 선박은 틀렘센 지역의 항구 도시 오랑이나 알제항으로 진출하였다. 마르세유가 진출한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남부의 몽펠리에 또한 틀렘센과 무역 교류를 시작하며, 오늘날 알제리의 항구 도시들이 남프랑스 도시들과 교역하기 시작했다.

자이안 왕조의 틀렘센은 안달루시아 문화를 번성하게 했고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하지만 15세기 말부터 상황은 달라진다. 이베리아반도에서 정략적 결혼⁵²⁾을 한 이사벨과 페르디난도가 결혼하면서 안달루시아 지역의 기독교화를 추진했다. 마그레브 안달루시아 중심지인 틀렘센 또한 스페인의 표적이 되었다. 자이안 왕국의 무능함에 따른 것이겠지만 결국 메르스 엘케비르(Mers-el-Kébir)⁵³⁾가 스페인 수중에 들어갔다. 스페인은 틀렘센 왕조에 일정한 형태의 요구를 내걸었다. 당시 자이안 왕조의 통치권자인 술탄 무함마드 7세(1528-1545)는 10년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스페인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정치적으로 종속이 되면서 항구의 통제권은 스페인에 넘어갔다. 이후 스페인은 자이안 왕조의 해변가와 항구 모두를 소유하게 된다. 무함마드 7세 또한 자신을 인정해주고 외부의 침략을 방어해준다면 스페인의 진출을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틀렘센은 쇠락해질 수밖에 없었고, 오스만터키가 올 때까지 스페인의 식민 도시로 남게 된다(Belkacem Daouadi 2009: 139-142).

자이안 왕조는 틀렘센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왕조를 구축해왔지만, 틀렘센 이외의 주변 지역은 늘 다른 왕조와 부족들의 견제와 공격에 시달렸다. 게다가 아라비아반도에서 건너 온 바누 힐랄의 마그레브 침입은 지역 상황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이베리아반도의 패권을 장악해가는 기독교의 스페인이 마그레브 지역을 노리게 만드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국가들의 결속력을 부추겼고 교황권 강화 또한 기독교 국가들의 투쟁성을 한껏 부추겼다. 기독교 국가들은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마그레브 왕조들과 겨뤄도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스페인은 레콘키스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레콘키스타 덕에 틀렘센의 안달루시아 문화가 개화했지만 동시에 틀렘센조차도 스페인의 위협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스페인은 마그레브 주요 항구를 차례로 손에 넣었다. 튀니지의

52) 두 왕조, 즉 아라곤과 카스티야는 규모나 제도, 전통, 언어 면에서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합쳐진 것일 뿐 왕국 간의 진정한 통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정략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53) 오랑 근처의 항구 도시이다. 고대부터 로마의 항구도시, 이슬람 시대에서는 알모하드 왕조의 해군기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1505년부터 1708년까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다. 1830년 프랑스가 알제리를 식민 지배를 하자마자 곧바로 프랑스령으로 삼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 항구도시이다. 1940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해군 간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제르바(Djerba) 섬이 1286년부터 1236년까지 스페인에 점령당했고, 리비아의 트리폴리는 1355년, 알제리의 안나바(Annaba)는 1399년, 모로코의 테투안(Tetouan)이 1399년 스페인 수중에 들어갔다. 기독교의 공격은 1453년 5월 29일 오스만 터키에게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을 빼앗긴 치욕스러운 역사를 되갚으려는 것이기도 했다. 오스만 터키는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였다. 당시 기독교의 전략은 마그레브 연안 항구를 차지하거나 무슬림 선적선을 파괴하면서 마그레브를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중동 지역과 오스만터키와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고 15세기 들어서자 틀렘센을 비롯한 마그레브는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힘이 없는 세력이 되었다.

5. 나가면서

안달루시아 문화 지역인 틀렘센은 역사 속에서 유럽과 아프리카, 지중해 문명을 흡수해가며 문명의 상호교류를 가장 선명하게 공유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이슬람이 도래하기 이전은 물론 이슬람 이후의 수용 과정에서도 이 지역은 토착민의 가치를 우선하며 타 종교를 수용하였다. 본고에서 언급한 이슬람의 수프리즘 왕조는 이에 대한 좋은 사례일 것이다. 그것은 지역의 특성과 기질을 반영한 선택이었고, 이는 오늘날 틀렘센 지역민의 정체성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

틀렘센은 동서로는 모로코와 리비아 사이의 교차로, 남북으로는 지중해 도시 국가들과 사하라(말리, 수단)를 잇는 교역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마그레브 안달루시아 문화 중심지이다. 베르베르인이 주류를 이뤘지만, 현재는 소수 부족인 베니 수누스만이 존재하며 베르베르 문화의 흔적을 힘겹게 지탱하고 있다. 이슬람의 카와리지파가 먼저 들어왔고, 이후 안달루시아 문화, 스페인, 오스만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여러 문명이 공존하며 번영과 쇠락을 같이 했다. 여타 마그레브 지역과 달리 베르베르 내에서도 특이점을, 이슬람에서도 카와리지파라는 특이점을 볼 수 있는 곳이었지만 안달루시아 문화를 개화시킨 곳이기도 하다.

이슬람 초기 베르베르인은 이베리아반도를 이슬람화하는 데 공헌했다. 당시의 주역은 카와리지파를 신봉한 베르베르인이었다. 베르베르인이 창건한 중세 자이얀 왕조는 이베리아반도의 안달루시아가 힘을 잃어갈 때 마그레브의 안달루시아 문화가 개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더불어 지중해 해상 도시들과의 교역을 통해 여타 유럽의 지중해 도시와 다를 바 없는 위상을 누리기도 했다. 안달루시아 문화를 수용하면서 사하라 일대 무역로를 크게 열었고, 항구 도시 오랑과 호나인을 통해 지중해 무역로를 열어가기도 했다. 틀렘센은 아프리카의 금과 노예, 상아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이 되었지만, 레콘키스타 이후 기독교 국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며 빠르게 쇠락해가기도 했지만, 21세기 들어 알제리 부테플리카 정부

(1999-2019) 들어서 이 지역 출신자들이 대거 권력의 중심에 들어서면서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다(임기대 2019b). 자이안 왕조 국기가 오늘날 알제리 국기의 원형이 된 것처럼, 과거의 영광과 자부심이 오늘날 권력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틀렘센을 조명하는 일은 이와 같이 현대 알제리 사회에 대한 이해는 물론 안달루시아 문화권에 대한 보다 확장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초기 이슬람을 받아들인 것을 시작으로 지중해 도시와의 활발한 교역은 틀렘센이 유럽 도시 국가들과 교역해 가며 안달루시아 왕조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구축해갔는지를 알게 한다. 이렇듯 역사적 과정과 기억의 축적물은 현대 들어 지역민의 자긍심이 되고 틀렘센을 오늘날 안달루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 자리하게 했다.

참고문헌

- 김정, 2002, 『이슬람 사전』, 학문사. 서울.
- 손주영, 1997, 『이슬람 칼리파制史: 이슬람 정치사상과 역사』, 민음사. 서울.
- 아이라 M. 라피두스, 2009, 『이슬람의 세계사 1』, 이산. 서울.
- 임기대, 2014, 「‘교차와 혼성’의 베르베르어권 ‘음자브’(M'zab) : 인류학적 종교적 관점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성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86집, 249~286.
- 임기대, 2019a, 「부테플리카 집권기의 알제리 권력 지형과 속성에 관한 연구-안달루시아 문화중심도시 ‘틀렘센’을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 56집, 231-264.
- 임기대, 2019b, 「부테플리카 중병과 퇴진 그리고 알제리 정치 체제에 남겨진 문제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제 41집 여름호, 431-458.
- 하병주, 2019, 「알카에다/IS 사례로 본 이슬람극단주의의 기저」,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전문가 간담회 발표 자료집』, 1-20.
- Belcaceem Daouadi, *Les relations commerciales entre le royaume Abdelwadide de Tlemcen et les villes du sud de l'Europe occidentale à partir du milieu du XIIe siècle jusqu'au milieu du XVIe*, Université Jean Moulin-Lyon III/CNRS. 2012.
- Chikh Bekr, *Le royaume Rostémide: Le premier Etat Algérien*, ENAG Editions, Alger. 2005.
- DE MAS LATRIE, *Traité de paix et de commerce et documents divers concernant les relations des Chrétiens avec les Arabes de l'Afrique du Nord au Moyen-Âge tome 1*, Henri Plon imprimeur-éditeur, Paris, 1866.
- Djamale Alilat(2019), “Beni Snous, le dernier royaume berbère de Tlemcen”, *El Watan*, 2019.03.03.
- Fatima Zohra Bouzina-Oufriha, *Tlemcen ai XVe siècle d'après le traité de Hisba de Mohammed El'Oqbani*, ENAG Edition, Alger.2016.
- Gabriel Camps, *Encyclopédie Berbère XXIII*, Edisud, Aix-en-Provence, France. 1-164. 2000.
- Hassina AMROUNI(2012), “Tlemcen, carrefour intellectuel: La cité a enfanté de nombreuses figures illustres”, *Mémoria*, 2012.08.01.
- Michel Antony, “Sur les traces des Almohades”, Lycée Colomb, Paris. pp.1-16. 2006.
- Nam Jong-kuk, *Le commerce du coton en Méditerranée à la fin du Moyen*

Age, Leiden, Boston. 2007.

Pierre Bourdieu, *Sociologie de l'Algérie*, PUF, Paris. 2006.

Richard L. Lawless, "Tlemcen, capitale du Maghreb central. Analyse des fonctions d'une ville islamique médiévale", *Revue des mondes musulmans et de la Méditerranée* 20. pp.49-66. 1975.

Stephen Harold Riggins, *Ethnic Minority Media: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age publications, Newbury Park, 1992.

Virginie Prevost, *Les Ibadites. De Djerba à Oman, la troisième voie de l'Islam*, Turnhout, Brepols. 2010

인터넷 사이트

<https://en.wikipedia.org/wiki/Tlemcen>

<https://fr.wikipedia.org/wiki/Maur%C3%A9tanie>

<https://fr.wikipedia.org/wiki/Vizir>

<https://en.wikipedia.org/wiki/Qadi>

http://www.wikiwand.com/fr/Banou_Ifren

https://fr.wikipedia.org/wiki/Histoire_des_Juifs_%C3%A0_Tlemcen

<https://www.judaicalgeria.com/pages/communautes-juives-d-algerie/communaute-de-tlemcen.html>

<https://fr.wikipedia.org/wiki/Moulouya>

https://fr.wikipedia.org/wiki/Hafsidides_de_B%C3%A9ja%C3%AFa

https://fr.wikipedia.org/wiki/Abou_Hammou_Moussa_Ier

https://fr.wikipedia.org/wiki/Ab%C3%BB_T%C3%A2shf%C3%AEn